

오피니언

다산포럼

염재호



말뚝을 피워도 남의 집 일인 양 못 본 체 하는 경우도 흔하다. 심지어 괜히 앞에서 있는 사람한테 "아저씨! 애 좀 혼내 주세요."라고 애교 섞인 주문까지 하는 젊은 얼마도 있다.

남 배려하는 사회

피곤해서 조는 것과는 달리 엎드려서 자는 것은 강의하는 교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지적을 했더니, 자신은 다른 사람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자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인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지하철을 타면 세상이 많이 보인다. 요즘 복잡한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다른 사람을 밀치고 지날 때에도 미안하다거나 죄송하다거나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기 어렵다.

내가 미안하고 내가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잠깐만요!"라고 하면서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자기중심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식당에서 아주머니들이 음식을 나를 때에도 대부분 "잠깐만요!"라는 말을 많이 쓴다. 여러 해 전에 이런 표현에 대해 논술 모의고사를 내본 적이 있다.

왜 미안하다거나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듣기 어렵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쓰는 "잠깐만요!"라는 표현은 매우 자기중심적이다.

상대편에 대한 배려가 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당연히

은 여성들을 많이 보게 된다. 심지어 기초 화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눈썹 그리는 것까지 20~30분을 남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화장에 몰입하는 여성들도 있다.

NGO 칼럼

최지현



기고

이안수



한동안 물 절약이 강조될 때 '우리나라는 UN이 지정한 물부족국가'라는 말이 빠지지 않았다.

수원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취수장 용량 또한 충분히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농업용 댐 물 용량은 남는다.

인구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는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라는 사실 연구소에서 국가별도 강수량과 인구를 변수로 하여 물기근, 물부족, 물공급 국가로 분류한 자료를 UNESCO가 한 보고서에 인용한 것이 UN의 공식 발표인 것처럼 오용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다시 물부족국가론이 재탕되고 있다. 현 정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 부족국가? 물 오용국가!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3배이지만 인구밀도가 높아 캐나다, 모로코, 트란스, 소말리아, 영국 등과 함께 물부족국가군에 포함되었다.

현재와 같은 영산분류 댐과 준설을 통한 물 확보 대책이라는 4대강 사업은 물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뱃길을 위한 수심 확보 때문에 마음대로 물을 쓸 수 없어 오히려 풍요 속의 빈곤이 될 것이다.

PAI에 따라 물 자원 정도를 평가하면 강수량이 늘거나 인구가 대폭 줄지 않는 이상 아무리 많은 댐을 지어도 우리나라는 영원한 물부족 국가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물 문제는 공급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요관리의 부족, 지속가능한 순환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있다.

광주·전남의 상수도 자료만 보더라도 물이 부족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영산강 수계 광주광역시 상수도 정수장 이용률이 58.0%, 정수장 가동률은 75.2%이고, 전라남도 정수장 이용률은 52.4%, 정수장 가동률은 72.9%다.

그러나 대형스럽게도 민선5기를 맞으면서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이 외형적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도심재생에 초점을

물, 돈같이 아껴쓰는 습관 기르자

22일은 UN이 정한 제19회 '세계 물의 날'이다. 점차 심각해지는 물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하여 지난 1992년 제47차 UN총회에서 선포한 날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물부족과 수질오염 등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댐건설을 비롯한 신규 수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

예전에 풍부한 물, 오염되지 않은 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물이 있을 때 예전 선조는 낭비벽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몰갠이 쓴다고 나무라셨다.

우리 모두가 물 문제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며 세수, 빨래, 설거지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 실천적인 아껴쓰기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임준·광주시 남구 백운동

매일같이 밥상에는 밥과 반찬들이 올라온다. 아무리 고기반찬이 맛있다고 한들 편식하게 되면 우리 몸은 영양결핍으로 불균형이 생길 것이다.

이 맞추어 지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동구를 중심으로 한 광주 구도심의 경우, 구 전담도청 자리에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는 등 공동화면 도심에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옛 광주읍성터에 공공 장식물(Urban folly) 설치 사업을 진행중에 있어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도시는 기형화 되었다. 도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도심의 자연이 파괴되었다.

또한 창조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동구에서는 경양방죽 퇴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경양방죽이 있었던 시기의 사진과 영상물, 그리고 유물을 수집·전시하여 느티나무 뚝방길을 걷고 뒤편

정겨운 골목길 문화 되살리자

소였던 계림동의 경양방죽이라고 할 수 있다.

던 그때의 향수를 되살리는 프로젝트다. 지금의 계림동 구(舊) 505번지 일대에 예전의 경양방죽 자리이므로 계림동 일대에 경양방죽 뚝방길을 재현하여 이점표를 세우고 점진적으로는 예전의 경양방죽을 모두 부활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만약 지금도 존치되어 있다면 광주의 가장 의미 있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을 것이다.

경양방죽에 관련된 이야기 등을 모아 모아서 경양스토리 마을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대형스럽게도 민선5기를 맞으면서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이 외형적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도심재생에 초점을

다. 지금의 계림동 구(舊) 505번지 일대에 예전의 경양방죽 자리이므로 계림동 일대에 경양방죽 뚝방길을 재현하여 이점표를 세우고 점진적으로는 예전의 경양방죽을 모두 부활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경양방죽에 관련된 이야기 등을 모아 모아서 경양스토리 마을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양방죽에 관련된 이야기 등을 모아 모아서 경양스토리 마을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설

'정치 후원금 허용' 여부 국민 뜻에 따라라

중앙선관위가 기업과 단체가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기로 해 논란이다.

은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수백억 원의 정치자금을 낼 수 있다. 정치권에 대한 대기업이나 이익단체 등의 과도한 영향력과 이에 따른 금권정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후원금이 집권당에 집중돼 정당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돼 정치를 왜곡하는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정자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여론 수렴 절차부터 거치는 게 순리일 것이다.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부터 이뤄내야 한다는 얘기가.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정자법 개정 의견은 자칫 '금권정치'가 다시 관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국회된, 선관위된 이런 절차나 과정 없이 정자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금권정치 청산과 정치의 투명성을 위해 추진된 몇 년 전 정책개혁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대형마트 주차장 관리 이렇게 허술해서야

광주의 한 대형할인매장 지하주차장에서 대낮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납치·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나 넓어 사각지대가 많고, 차량들로 시야가 가려 짧은 시간에 벌어지는 범행은 잘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산부 조모(30)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께 북구 H할인매장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한 남자에게 강제로 납치됐다고 한다.

한마디로 주차장 관리가 엉망이라는 얘기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일반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범죄의 대상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발생 10일 만인 지난 17일에야 범인 정보(35)씨를 검거했다.

매장 곳곳에는 150대나 CC-TV를 설치하면서 주차장에는 8대가 고작이고, 매장에는 관리 요원이 그렇게 많으면서 주차장엔 외면하는 것이 상 도의상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문제는 8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나 주차 면적이 100대 이상으로 위

라면 고객들이 찾지 않는 게 현명하다.

無等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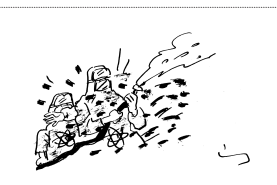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폭발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될 것인가?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달아오르는 원자로를 바닷물로 식히는 일본 정부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최악의 상황이란 지난 19~20일 잠시 위기에서 비껴났다.

핵 공포에 맞서는 이들의 노력으로 원전사태를 종식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그렇지만 초기 대폭발을 막아낸 결사대가 일등공신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아직 결과를 숙단하기는 이르지만 약화일로 사태를 겨우 추스릴 수 있다면 바로 '원전결사대' 덕분이다.

원전결사대는 사고 순간부터 방사능 확산을 막기 위해 피폭 위험을 무릅쓰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원전 작업자들이다.

원전 결사대



원전결사대는 사고 순간부터 방사능 확산을 막기 위해 피폭 위험을 무릅쓰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원전 작업자들이다.

원전결사대는 사고 순간부터 방사능 확산을 막기 위해 피폭 위험을 무릅쓰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원전 작업자들이다.

Table with 2 columns: 광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address.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